

<강간과 성노예 체제>

조선인 피해자 중 많은 이들이 공장으로 혹은 병원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며 도착한 곳은 바로 위안소였습니다.

절망

연행되어 처음 강간을 당하였을 때 피해자들은 그냥 당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는 저항하였고 막강한 물리적 폭력하에 피해자들은 또 다시 상처를 입었습니다.

노예화

지속되는 지옥 나날을 피하기 위해 도주나 자살을 기도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절망하여 어린 나이에 담배와 나아가서는 아편에 중독되기도 하였습니다.

위안소

그러나 그들이 도주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습니다.

감시, 철조망, 군인초소

일단 가능하다고 해도 낮선 곳이었고, 섬으로 고립되어 있거나, 언어가 통하지도 않았으며, 돈도 없었습니다.

또한 도망의 실패는 가혹한 체벌과 처형까지 있었습니다.

일본군의 감시하에서 하루에도 수많은 군인들을 상대하게 하였던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노예제라고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위안소

일본군의 목적에 따라 이동식위안소도 만들었습니다.

일본군의 전선을 따라 버어마 오지나 섬에도 임시적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총알이 쏟아지는 전선으로 군인의 부속품으로

끌려다닌 경우가 많았습니다.

규정

이것은 바로 일본군 위안부제도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제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저기 왔다갔다하는 군인들 뒷편에 보이는 것은 위안소 규정입니다. 이것은 군에서 군인과 위안부를 통제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는 군인의 사용규칙, 위안부에 대한 정기적 성병검진, 군표제 등이 다뤄졌습니다.

그림

피해자들은 자신의 울분과 한을 승화시키려는 여러가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림도 그 한 예입니다. 다음은 피해자 강덕경 할머니가 그린 그림입니다. 끔찍한 고통의 세월을 보냈던 뉴기니아의 라바울 위안소에서의 생활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악몽은 그만.

-피해자 김복동할머니 증언과 가해자 특정

피해자 김복동 비디오 증언 2:40

피해자 김복동 사례는 아주 전형적인 것입니다.

15세에 강제연행되어 광둥-홍콩-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싱가폴로 끌려다니면서, 위안부생활을 강요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천막으로 된 이동식 위안소에서 강간당한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광둥지역에 위안소를 설치하여 다수의 여성들을 연행하여 왔고 광둥지역 위안소가 지속되게 한 책임은 제21군 사령관이었던 안도 리키치입니다.

뿐만아니라 피해자 김복동할머니가 위안부로 강제 연행되었을 때의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가 제출한 증언집 2집 김복동할머니 부분을 참고해 주십시오.

미나미 지로는 미성년이었던 피해자 김복동을 정신대란 이름으로 동원하는데 조선총독부 말단행정조직이 관여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용선으로 피해자를 이송하는데 간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인 위안부들에 대한 가해자들을 피해자의 증언을 통해 특정해 보았습니다. 한정된 시간으로 본 법정 증인으로 채택한 피해자 송신도, 김군자 증언조차 다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미 제출된 자료로서 대신 하고자 합니다.

- 피해자 문필기 할머니 증언과 가해자 특정

질문:

1) 피해자께서는 몇살 때 끌려 갔습니까?

16세

2) 누가 어떻게 하여 끌려 가게 되었지요?/경찰이 데리고 갔다면서요?

3) 만주 위안소로 끌려 가서 처음 군인에게 어떻게 강간당했나요?(다다미 깔)

4) 그곳에는 군인만 왔습니까?

5) 거기서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까? 왜 도망칠수 없었습니까?

6) 거기서 몸을 크게 다친 적이 있었지요? (폐치카)
왜 그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피해자 김영숙, 문필기는 1939년, 1942년에 끌려가 일제가 패전할 때까지 성노예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중국 동북부 만주로 끌려 갔습니다.

이들이 끌려가 위안부로 끔찍하게 생활하였던 관동군사령관은 우메즈 요시지로(1939-1944)였습니다.

이들만이 아니라 우메즈 요시지로의 재임기간인 1941년 7,8월 관동군특별연습기간에 조선여성 3000명을 끌고 간 것은 담당 군인 무라카미 사다오의 증언편지가 있습니다.

재판장님 일본 기소장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증인들이 만주로 연행된 것은

그와 같은 대량 연행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